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빌딩소	931 노스킹.스트릿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이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상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요금	1747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 4월 29일 금요일	Issue No.	1747
		Date	June 13, 1969: Fri.

철병의 주력은 전투부대 레아드 국방장관 언명

(워싱턴 6월 10일 밤, 중동) 미드웨이 회담으로부터 귀국한 레아드미 국방장관은 9일, 국방용성의 기자단 앞에서 지식의 기자회견을 하고, "남비에르넬 정부군과 고대하여 철수하는 미군에는 육군 해병대도 포함된다. 그의 대부분은 미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2만 5천 명의 철수병력은 전투 부대에 중점을 두어 생각한다" 라고 언명하였다.

추가 철회

또 동장관은 "미국 정부는 현재부터 8월 초까지에 2만 5천 명이 위의 미군 추가 철회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레아드 국방장관은 철수하는 병력의 대부분이 본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2부가 오끼나와나 하와이의 미군기지증상에 충당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미군 철병은 선전적 책략

(모스크바 6월 10일 밤, 중동) 라스등신은 9일, 니슨미대통령의 남비에르넬으로부터 2만 5천 명의 병력을 철병시킨다는 결정에 대해서 논평, "2만 5천 명의 철병은 선전적 책략에 지나지 않고, 미국 정부는 이에 의해서 비에르넬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비에르넬 방송, 미추 철병 발표를 비난

한편, 해방전선 방송은 "니슨의 철병 발표에 의해서 미국과 그의 부하인 사이공 정권의 패배가 확실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또 북비에르넬의 하노이 방송은 "북비에르넬은 미군 포로를 학대하고 있다" 라는 레아드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북비에르넬 상공에서 격추된 미 비행사는 전쟁범죄 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는 비난을 반복하면서 "그러나 포로들은 비에르넬 민주공화국의 인도적 정책에 따라서 조운 처우를 받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니슨 대통령, 북쪽에 철병을 호소

(워싱턴 6월 11일 밤, 중동) 미드웨이 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간 니슨 대통령은 10일 밤, 레메비즈를 통해서 전하에 자담본 보고를 하고, 이 중에서 "미군 2만 5천 명의 철병에 대응하여 북비에르넬 군도 군대의 일부를 철퇴시키고, 파리 회담 회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비에트콩측이 잠정혁명정부를 수립 연립정부의 설립을 주장

(사이곤 6월 11일 밤, 에이피) 10일 밤 "잠정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남비에트국민해방전선방송은, 11일 밤 해방전선방송을 통해서 신정부의 * 12항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중에는 "남비에트내외 국외의 정치단체와 협력하여 잠정연립정부의 설립을 목적으로한다. 이 연립정부는, 국민의 회를 창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준비하는것이다" 라는 항목이 들어가있다. 후남비에트국민대통령은 9일 "어떠한 형태이든지 연립정부의 설립을 주장하는자는, 그외교관의 인물이라도 엄벌에 처한다" 라고 경고하였다.

화토 서기장이 수반 빈여사는 외상

(사이곤 6월 11일 밤, 공동) 남비에트국민해방전선은 드디어 일방적일시정권수립을 결정하였다. 11일의 방송에 의하면, "남비에트공화국임시혁명정부"의 수반은 왕.란.화토 해방전선서기장, 외상에 권.지.빈여사 (남비에트국민해방전선의 파리회담제 1차선대표) 가 지명되었다. 빈여사는 그대로 파리에 남아있어, 파리회담의 수석대표를 겸한다.

파리 회담에서도 명칭 변경

(파리 6월 11일 밤, 에이피) 파리 회담 외평 회담의 찬.부.김남비에트국민해방전선 수석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잠정혁명정부가 해방전선에 대신하여 파리회담에 출석한다. 권.지.빈여사가 신정부의 외무대신으로 임명되고, 파리회담의 수석대표가 된다" 라고 발표하였다. 김대표는 이 발표중 "잠정혁명정부는 남비에트내에서서의 최고행정기관이다" 라고 말하였다. 동경에서 수신한 아노이 방송에 의하면, 해방전선대표단중 김수석대표와 찬.오아.남대표는 신정부의 정책에 들어가기 위해 귀국, 대신으로 권.반.첸, 딘.바.지양씨가 차석대표로 임명되었다. 동방송은 "이이들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였다. 해방전선으로부터 잠정혁명정부에의 변희에 대해서, 미국, 남비에트내에서는, 양국이다 해방전선도 북비에트내도 승인하지 않고있는이상, 잠정혁명정부의 승인이라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실질적 변화 없다

미국측은 "명칭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의 구성인원은 공산주의자로서의 긴 경력이나 동조자로서의 배경을 가진 전과 같은 인물이 지나지 않는다. 해방전선이라고 부르든지 혁명정부라고 부르든지, 그의 방침도 원칙도 종래에도 북비에트내에 의뢰하는 데는 달름없다" 라고 말하였다. 또 남비에트내대변인은 김수석대표의 발표에 있어서 "공산주의자가 어떠한 입등으로 나오더라도 "두족"의 회담이라는 파리회담의 성격에는 영향을 없다" 라고 말하고있다.

미국과 남비에트내의 리간이 목적

해방전선의 이 움직임은, 미드웨이 회담에서 닉슨.주양대통령이 표시한 미.남비에트내의 연대에 간격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한것이라고 본다.

중공, 소련 양군 쿠칭서 또 충돌

(동경 6월 11일 밤, 공동) 11일의 북경방송에 의하면, 중공외무성은 동일, 중국주재소련 대사관에 각서를 보내고, 소련정부가 10일, 소련군을 신장자치구에 침입시켜, 새로운 유혈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였다.

(제 3 편에 계속)



(제 2 편으로부터 계속)

"이에 의해서 생기는 일점의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소련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심하게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10일 밤 소련군수입명이 중공신장자치구, 파두주산서부지구에 침입, 방쿠아그릿은 3인의 북측민에 대해서, 조발을 하고, 안명을 남기하였다. 중국국경수비대 요원은 고성에 나섰는데, 소련군은 먼저 반포, 그 자리에 동태한 중국북측민 안명을 사살하였다. 중국국경수비대원은, 자위돌위해 반격을 하였다. 그후 소련군은 또 다수의 전차, 장갑차를 동원하여 중국영내에 침입 일층 중대한 무력충돌을 일으켰다.

한국, 오끼나와, 이지에 중대 관심

(가와나 11일 밤, 공동) 아시아태평양협의의 외교통의에 출석중의 최규하한국외상은, 11일 오전 가와나호텔에서 열린 내외기자 회견에서 "오끼나와의 미군기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편측하고 포괄적인 활용이라는 그 가치가 업서져서 는 안되고, 한국측의 관심은 반원우의 오끼나와 기지의 취급과 태도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에 큰것을 두고있다" 라고 말하고, 오끼나와의 반환 고성에 한국이 중대한 관심을 두고있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또 한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협의 회의 3년간의 진보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군사동맹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최외상은 또 이 2, 3년중에 한국반도에서 전면전쟁이 일어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조선공산세력의 조반, 침략행위가 강화되고있는것은 확실하며, 한국으로서 그러한 정세에 충분히 대처하고, 준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닉슨대통령이 오끼나와에 큰 관심

(가와나 6월 11일 밤, 공동) 아이지외상은 8일 오후 가와나에서의 정양처로 사또수상을 방문하고, 미국방문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외상은 석상, 닉슨대통령을 위시하여 미정부수석의와의 회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보고하는 동시에, 외상 자신이 일련의 일미절중에서 받은 인상으로서 "미정부는 닉슨대통령의 주도권하에 사또내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노력을 견지고, 11월의 일.미수뇌 회담에서 결말을 짓겠다" 라는 태도였다" 라고 설명하였다. 외상은 또 그러한 인상을 받은 근거로서, 타자.스극부장관은 위시하여 미각도들과의 회담에서, 미국측이 "오끼나와문제에는 대통령 자신이 큰 강한 관심을 가지고있다" 라고 발언한것이다. 외상은 회담후 "나의 보고를 뜻고 수상도 오끼나와결중의 제 1회에 충분히 안심하였스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다.

롬법왕이 제네바 방문 인사

(제네바 6월 10일 밤, 에이피) 롬법왕 파우로 6세는 10일, 신코의 중본부인 제네바에 반일 체재하고, 국제노동기구와 세계교회평의회 본부를 방문하였다. 세계교회평의회는 교회(신코)단체중에서 최대의 것으로, 캐드릭교회들 대표하는 롬법왕의 방문은 역사적이라고 할수있다. 파우로 6세는 동평의 회본부에서 "캐드릭교회의 단체가평의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적극적인 대답은 할수없고, 또 약언할된다. 그러나 당신들의 일에대한 큰 존경과 깊은 애정은 가지고 있다." 라고 인사하였다. 파우로 6세의 외국방문은 이것으로 7번째, 반캐드릭의 퍼피마의 시위 운동을 정제하고, 스이스경찰에서는 엄중한 경비태세를 가하고있었다. 법왕의 용피에는 이곳 저곳에 경비가 가졌는데, 실제에는 모인 사람은 적고, 법왕의 외국여행중 이 화강이 쌀쌀한 환영받은 처음이었다.

(제 3 편)

중앙정부가 물가, 임금 통제 ?

(워싱턴 6월11일밤, 에이피) 켈네디재무장관은 10일 국회에서의 증언에서 "미국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라를 위협에 노여있다" 라고 말하였다.

켈네디장관이 정부가 물가, 임금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를 미하였는데, "나개인으로서 물가, 임금통제에는 반대이다. 정부로서도 현재에는 소득세의 10%부가세와 같은 단기 인플레이션 억제대책을 입방침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지구라대통령보도관은 11일 "닉슨대통령은 물가, 자금, 임금통제를 강제하거나 의향을 가지고있지않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뉴욕주지사장은 10일 이후, 켈네디장관의 발언으로 아락을 계속하고있다.

+ 퍼-센트부가 새 7월말에 폐지 ?

(오호루루 6월11일밤) 11일에 마스나가국회하원의원은 6월30일에 만기가되는 연방소득세에 대한 10%의 부가세법은 연장되지안고, 그대로 폐지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예측을 입증하는것으로서 국회제언도는 육자로 뜻나는것, 따라서 의회방면에서는 부가세의 필요가 없다고보고있다는것 등이다. 또 비에트남문제에서는 비에트남전쟁관은 이 1, 2년간사이에 대비약한것으로보고,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미드웨이도에서의 닉슨대통령, 추대통령 회담의 결과에는 실망하였다. 남비에트남에서 자유선거를하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연립감시위원회의 설립을 닉슨대통령은 강요하여야한다. 이자유선거에는 비에트남측의 참가를 인정하는것이 절대 필요하다. 연립감시 위원회는 선거의 결과를 모든 관계당파에 수락시킬 권한을 가진것이 아니면안된다. 전쟁의 종결 과정에서 미국은 남북양비에트남에 원조의 손을 뻗쳐야한다.

한국친선사절단 일행 도착

미태평양지구총사령관과 8군총사령관의 초대로 한국친선사절단이 하와이로 지난 6월5일오전 10시 군용기편으로왔는데, 동일행은 하와이에서 10일간의 공식방문을 마치고 16일에 한국으로향해 다시 떠난다고하는데, 하와이에 체류시의 일정은 다음과같다.

- 6월 5일 안인연합회에서 만찬회를 영사관을 빌려서 개최
- 6월 6일 라지볼에 화환헌정 묵도. 김세원총영사를 예방. 태평양지구총사령관 메인스태장 예방, 이어 주시회에 참석. 오후에 진주만을 해군군함으로 순행, 저녁은 개인초대 새벽에 골프. 시내구경. 가아루우에서 해수욕. 저녁은 국민회에서 대접.
- 6월 7일
- 6월 8일 골프, 교회에 예배. 저녁은 하와이에서 한국으로갔다온 1968년도 친선사절단이 대접
- 6월 9일 각자의 전문분야 방문 시찰. 저녁은 개인초대
- 6월 10일 "씨.라이프.마크" 방문. 안인상공회에서 주시대접. 저녁은 와이아와안인단체에서 합동으로 대접 (오리브 감독교회, 안인기독교회와이아와교회, 태극 클럽)
- 6월 11일 가메하메아.데이 시가행진을 참관. 점심은 동지회중앙부와 부인구제회주최로 대접 저녁때에는 라에아의 포르네시안 문화중앙소에 참관
- 6월 12일 오호루루를 떠나 입으로 향반. 입모시강등 정부요인과 안인들의 환영으로 순행. 저녁은 립모안인사회단체의 초대로 참석
- 6월 13일 모나로 출발. 마우게아.호텔에서 하와이섬시장의 초대로 점심대접. 저녁은 개인접
- 6월 14일 가아루이.마우이도 출발. 마우이안인단체의 환영회에 참석
- 6월 15일 오호루루로 돌아와 점심과 저녁은 개인이 대접
- 6월 16일 한국으로향해 출발. 이번 일행 4명의 시명은 다음과같다. 권일배씨, 송락준씨, 서명석씨, 박성배씨, 그리고 8군의 조지.김씨이다.

